

濟州島 巫俗과 神話

張 籌 根*

1. 머리말

제주도 무속에서는 敍事巫歌를 本풀이라고 통칭한다. 本풀이는 本과 풀이의 合成名詞로서 神들의 根本, 來歷들을 해석 설명하는 설화라고 그 낱말풀이를 할 수가 있다. 本풀이는 祭儀를 構成하는 一要素로서 그대로 살아있는 신화이며, 신화가 가지는 제의와의 상관성과 나아가서는 신화의 발생 전승의 계양상들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귀중한 학술자료이다.

심방들은 本풀이에 이리이러하니 이 귀신은 이렇게 모셔야 한다고 한다. 本풀이는 神의 내력이나 성격의 설명인 동시에 제의를 집행하는 원리가 되고, 동시에 제주도 무속사회의 神學理論이 되기도 한다. 제주도 심방들이 가창하는 本풀이는 대략 3~400페이지 정도의 방대한 분량이 될 수가 있다. 연구자들은 지금 이것을 그 성격상 堂神本풀이, 一般神本풀이, 祖上神本풀이들로 三大分類를 하고 있다.

2. 堂神本풀이

각 마을의 堂에서 모시는 신들의 本풀이이다. 따라서 堂神本풀이는 特定祭日에 特定司祭者(堂면神房)에 의해서 가창되는 堂神의 本풀이라고 일단 정의할 수가 있다. 이것은 지금 長短篇을 망라해서 百餘篇을 헤아릴 수 있

* 경기대

을 것이다. 堂神本풀이는 一般神本풀이들과는 正反對로 제주도의 地理性을 철저하게 반영하고, 土着的으로 자연발생해온 신화들이다. 그것을 구성하는 주요 모티브들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분석 종합할 수가 있다.

1) 起源形. ① 男神의 湧出 또는 ② 女神의 入島만으로 형성된 5,6行 정도의 短篇들이다. 男神들은 漢拏山등 島内の 神聖處에서 솟아나고, 女神들은 흔히 龍王國, 江南天子國, 서울 等地에서 入島한다.

2) 基本形. ①—③座定經緯譚 또는 ②—③으로 敘事性이 생기기 시작하는 短篇들이다. 흔히 남신들은 湧出後 狩獵 肉食生活을 하다가 射矢卜地하고 좌정한다.

3) 成長形. ①—②—③↔④ 男女神의 結婚으로 敘事性이 확실해진 신화들이다. ③ 座定經緯譚과 ④ 結婚은 서로 바뀌는 수가 있다. 三姓神話는 이 成長形에 속한다.

4) 完成形. ①—②—③↔④—⑤ 男女神의 食性的 葛藤·別居 —⑥ 追放된 子神의 海中武勇譚. 松堂, 兎山岫堂, 金寧피내기堂등 島内の 큰堂들의 6편 정도가 이에 속한다.

이상 주요 구성요소들의 구조와 意味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① 男神의 湧出, 狩獵 肉食은 山岳崇拜性에다가 현재도 一級사냥터인 제주도 남성들에 의한 土着狩獵文化의 反映이다. ② 女神의 入島는 4面의 바다에 대한 信仰의 반영이다. 그녀들은 흔히 海洋界에서 米食性이나, 또는 神秘의 符術을 가져오고 治病神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 ③ 座定經緯譚에서 男神들의 射矢卜地는 그 수렴성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女神들은 흔히 住民들에게 凶驗을 주어서 자신의 信奉을 요구하며 좌정하는데, 자신의 豚肉食性을 알려서 그 祭物, 祭法을 풀이하는 경우들이 몇편 있다. ④ 結婚은 土着 男性 狩獵文化에 새로운 農耕文化의 複合이라는 文化史의 상징적인 반영을 보이는 바가 있다.

이때 ⑤ 男女神의 食性的 葛藤과 別居에서는 언제나 肉食은 不淨한 下位의 것, 米食은 淨한 上位의 것이라는 對立觀念이 보인다. 이것도 祭物, 祭法의 풀이라는 宗教祭儀와 아울러서 農耕文化의 優越性을 말하는 文化觀의

反映으로 여겨진다.¹⁾ ⑥ 追放된 子神의 海中武勇譚은 물론 그 地理性의 신화적 반영으로서 英雄敍事詩의 싹을 보여주며 文化史的인 흥미를 돋구어 주는 대목이 된다.

다시 위의 堂神神話들의 全體構造가 의미하는 것은, 제주도 村落生活에서의 堂神信仰의 宗教體系이며, 神學이고, 神話의 世界이다. 여기에는 민감한 地理性의 反映에 실제 文化史의 상징적인 反映도 엿보인다. 던데스(Alan Dundes)는 北美 인디언의 그 방대한 설화들도 결코 우연한 모티브들의 集成일 수는 없다고 한 바가 있으나²⁾ 여기 堂神神話들이야말로 그 종교체제에 어긋나는 모티브는 함부로 끼어들지 못하게 억제를 받아왔다. 때문에 이 堂神神話는 그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매우 단조롭고 가난한 神話群이다. 그러나 그 가난은 제주도의 地瘠民貧이나, 후세 儒敎合理主義의 억압들과는 무관하며, 진실한 그 종교체제와 神學의 테두리 안의 신화들이다.³⁾

3. 一般神本풀이

一般神本풀이는 제주도 내에서는 어디서나 언제나 어느 심방에 의해서나 필요한대로 곳이 거행되면 가창될 수 있는 일반 巫神들의 本풀이이다. 이것은 지금 도합 10여편 정도가 전승되는데 대개가 상당한 長篇 敍事巫歌들이다. 一般神本풀이에는 堂神本풀이들에 보이는 제주도의 독자성이나 지리성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本土에서 채록된 서사무가들과 공통된 것이 많아서 그 뿌리의 主流가 본토에 있었음을 짐작시켜 준다.

一般神本풀이들에서 우선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불교요소이다. 예컨대 二公本풀이는 月印釋譜(1459年刊)에 기록된 安樂國太子經과 같은 내용이고 世經本풀이는 中國 講唱文學인 梁山伯寶卷과 같은 내용이고, 秋葉本에 채록

1) 玄容駿. 「濟州島 巫俗의 研究」. 1985, p.208.

2) Alan Dundes. 「Structural Typology in North American Indian Folktales」. The Study of Folklore, 1965 pp.206-215.

3) 張壽根. 「濟州島 堂神神話의 構造와 意味」. 濟州島研究 3집, 1986, pp.249-256.

된 世民皇帝本풀이는 中國 講唱인 唐太宗入冥記와 같은 내용이다. 이 3편에서는 같은 내용의 古典佛敎小說安樂園傳, 梁山伯傳, 唐太宗傳 등도 파생되어 있다.

또 差使本풀이, 地藏本풀이들은 그 이름도 佛敎 그대로이고 十王맞이라는 佛敎色 祭次에서 가창된다. 産神할망本풀이는 生佛할망本풀이라고도 부르며 그 祭次는 佛道맞이라 부르고, 이때 심방은 僧服차림을 한다. 또 巫祖神話 初公本풀이는 巫祖 三兄弟가 僧子로 되어 있어서 심방들간에도 神道法(巫俗)은 佛法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三公本풀이의 神은 前生(前身因緣神)으로 부르며 역시 강한 불교색채를 띠고 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佛敎性이 없는 것은 門前本풀이 한편 밖에는 남지 않는다. 그리고 큰곳에 나오는 10편의 신화중 다섯편 이상에 二公本풀이의 西天꽃발이 나오는 것은 이들이 서로 유기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이들 신화가 동일집단에 의해서 동일시대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들 一般本풀이와 큰곳은 上下位神들의 位階秩序가 정연하고, 그 체계적인 구조성이 지적된다. 또 이 큰곳은 제주도 자체내의 자연발생물이 아니라 本土에서 이입된 것으로 그 뿌리가 같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⁴⁾

一般神本풀이들도 堂神本풀이들과 같이 一般곳 堂곳들과 더불어 原初 이래의 必要性과 自然發生性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 큰곳과 그 10편의 一般神本풀이들이 보이는 유기적 상관성, 구조적 체계성등의 동일집단에 의한 동일시대의 형성 가능성은 그 강한 불교성으로 보아서 불교 수입 이후의 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堂神本풀이에서는 아직도 土着的인 순수성이 강한 점과, 그 三姓神話 형성의 기반 구실을 했던 점들을 주목하고 싶다. 그에 비하면 一般神本풀이 들은 이미 보인 3편의 古典佛敎小說의 산출역이나 강창문학과와의 관련, 巫佛習合文藝의 形成, 唱의 文學性등으로 그 韓國民衆文學史의 기반역 할에도 크게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바가 있다.

4) 李秀子,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梨大博士學位論文, 1989, pp. 229-234.

4. 祖上神本풀이

조상신본풀이는 特定家門의 조상신, 또는 家業, 家運의 수호신의 本풀이로서 그 가문의 단골심방들이 알고 그 곳에서 가창하는 本풀이이다. 따라서 一般神本풀이처럼 제주도 심방이라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 못되고, 堂神풀이처럼 마을 공동의 신이기에 인근지역 심방들이라고 다 알고 있는 것도 못된다. 있는 집안도 있고 없는 집안도 있는 가문 단위의 것이다.

흔히 조상, 日月, 日月祖上, 군웅, 군웅일월들로 부르는 이 무속적 조상신 관념은 유교적 혈연조상숭배 체계와는 구별된다. 이 조상신에는 특출했던 한 先代의 실제 혈연조상도 있고, 처녀의 원혼을 모시는 경우나, 蛇神을 모시는 경우들을 많고 그 밖에도 신의 종류는 잡다하다. 그 신들의 일정한 居處나 祭場도 없는 경우가 많다. 계승도 父家系 계승이 많으나 母女간의 계승도 있다. 이것은 그래서 아직 채록도 충분하지 못하고, 어떤 共通性的 歸納도 어려워져 연구 논의도 거의 없었기에, 여기서도 그 존재양상을 우선 주목해두는 데서 그치기로 한다.

5. 맺는 말

1) 神話와 宗教儀禮—곳과 本풀이의 관계

本풀이는 대개 심방이 제상 앞에 앉아서 스스로 장고를 치며 독창으로 口演한다. 그 신을 모시는 거리마다 講神, 供宴들 후에 굿하는 날자, 장소, 사유들을 아뢰며 내용에 들어간다. 끝나면 本풀이를 다 올렸으니 어떻게 해달라는 간곡한 축원으로 넘어간다. 그것은 신이 그 축원을 안들어주지 못하게 하는 효과적인 다짐이기도 하다.⁵¹⁾

심방이 이것을 멋지게 가창하는 것은 굿의 효과를 울리며, 신을 기쁘게 하고, 祈主를 만족시키고, 심방 스스로는 인기를 얻는 길도 된다.

5) 玄容駿, 「濟州島神話」, 瑞文文庫, 1976, p.313.

本풀이는 祭儀의 歌唱部分인 풀이이고, 때로는 그에 따르는 行爲部分인 놀이도 연회된다. 이렇듯 祭儀構成의 一要素로서, 神話로 가창되는 本풀이를 대할 때, 우리는 많은 神話發生에 관한 學說들 중에서 儀禮主義(ritualism)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本풀이는 현재도 生動하는 儀禮主義의 든든한 支柱가 될 資料라고 할 것이다.

2) 濟州島 巫俗과 神話의 體系性

필자는 앞에서 堂神本풀이의 전체 體系는 제주도 村落生活의 堂神信仰의 宗教體系이며 神學이라고 했다. 그에 어긋나는 모티브는 함부로 끼어들기 어려운 체계에 짜여있는 것이라고 했다. 本土의 무속에서는 諸神間에 位階秩序가 없고 각자 독립적이라고 지적된 바 있으나⁶⁾ 제주도는 다르다. 특히 큰굿의 경우 上下位神들의 위계질서가 정연하고, 체계적인 구조성이 있다는 것이 앞에서도 지적되었다.

동시에 천지창조신화, 인간탄생을 담당하는 신화, 죽음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 농경 기원의 신화등등 전세계에 보편하는 신화들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화가 없는 민족이 아니라 완벽하게 짜여져있는 많은 신화를 가지고 있는, 또는 가지고 있었던 민족임을 알 수 있게 한다고도 지적되고 있다.⁷⁾ 여하튼 그 종교의례와 神學이 같은 神話의 世界 안에 혼연일체의 구조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제주도 무속과 신화라고 할 수가 있다.

3) 그 始源과 歷史

엘리아데(M. Eliade)는 무속의 시원을 구석기시대부터 논급한 바가 있다.⁸⁾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국무속의 첫 자료로서는 靑銅器時代의 多鈕細文鏡, 細形銅劍, 八頭鈴들을 들을 수가 있다. 이러한 전체 하에서 제주도 무속과 신화의 시원에 대해서 억지로 추측을 가한다면 그것은 제주도에 인간이 이주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그 나름의 것이 형성되었으리라 할 수

6) 任哲宰. 「韓國巫俗研究 序說」. 淑大 亞細亞女性研究 9집, 1970, p. 88.

7) 李秀子. 同上. p. 233.

8) M. Eliade. 「Shamanism」. Pantheon Books, 1964, p. 503.

가 있겠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찾는다면 堂神本풀이들은 그 三姓神話와의 同質性으로 보아서 이미 고려시대에는 형성, 전승되고 있었던 것을 헤아릴 수가 있다. 그리고 一般神本풀이들은 전기했듯이 그 강한 불교성, 동일 시대와 집단에 의한 형성 가능성으로 보아서 불교가 수입되고 흥성하던 시대에 오늘날과 같은 체계화를 이루었으리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풀이들에 나오는 조선시대 官職名들과 관습들, 특히 初公本풀이에서 과거에 급제한 중의 자식들이 천민이라고 취소당하는 예들은 그것이 조선시대의 형성인지, 변화인지, 첨가인지 판단을 어렵게 하는 대목들이라고 할 것이다.

4) 本土 巫俗, 文獻神話와의 관계

本土의 洞祭에서는 지금 몇년 걸이의 別神굿 이외에는 무당 사제를 보기 어렵고, 巫歌로서의 堂神神話는 더구나 찾을 수가 없다. 다만 堂神本풀이—三姓神話—本土 文獻始祖神話들을 연관시키면 기본적인 유사성이 탐색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一般神本풀이는 孫晉泰 이래로 여러편이 같은 내용으로 채록되었고, 그러한 사례는 지금도 진무하지는 않다.⁹⁾ 그래서 그 뿌리가 本土와 같고, 오랜 옛날에 分化되었으리라고 지적되었다.

그리고 한국 신화학에는 王權神話는 王朝의 本풀이라는 한 命題가 있었는데¹⁰⁾ 그 가장 적절한 例로 三姓神話를 들을 수가 있다. 耽羅國의 三姓神話는 전기했듯이 堂神本풀이의 기록 정착이었다. 그리고 三姓始祖 제의도 본래는 廣壤堂에서 무당굿으로 행하던 것을 牧使 李壽童이 中宗 21年(1526年)에 비로서 三姓穴 옆에 단을 쌓고 儒敎式 제향을 올리게 했다는 명확한 기록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堂神本풀이가 耽羅國 시조신화로 文獻神話化한 상황은 좀 더 구체

9) 一例로 金承燦 채록. 강분이(女巫, 49세) 口誦, 口碑文學大系 金海市郡篇, 1983, pp.123-146. 이 악양국王子 노래는 安樂國太子經과 같은 내용이다.

10) 金烈圭, 「神話學에서 본 韓國思想의 源流, 民族文化의 源流」, 精神文化研究院, 1980, p.115.

적으로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었다.¹¹⁾ 그리고 그것은 제주도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고, 한국의 문헌시조신화들이 가지는 巫俗要素들을 지적하고 이미 많은 발표들이 되어왔던 일이다.

5) 神話와 文學史

위에서 一般神本풀이들이 가지는 강한 불교요소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世經本풀이, 世民皇帝本풀이, 二公本풀이들이 가지는 梁山伯傳, 唐太宗傳, 安樂國傳 등의 古典佛敎小說들의 출현 관련성도 지적되었다. 특히 前二者는 中國 上代 이래의 講唱文學의 수입물이다. 중국의 講唱文學과 같은 그 나라 言語로서의 佛敎 布敎를 위한 歌唱 敎事文學은 日本에도 불교 수입 이후 和讚, 唱導文藝 등의 이름으로 후대의 많은 國民文藝形態들의 母胎役을 해왔다.

한국에도 梵唄같은 純漢文이 아니고, 우리말의 大衆 布敎 가요로서 和請이 있어왔고, 그 源流가 바로 元曉의 無旱歌와 脈을 같이 하는 역사오랜 것이라는 논의들이 있어왔다.¹²⁾ 李能和는 신라의 僧侶들이 佛歌를 잘 지었으니 지금의 판소리들이 疑皆出於羅僧之手라고 한 일이 있다.¹³⁾ 그 논거에는 도약이 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金學主의 판소리의 中國 講唱 영향설보다는 재고의 여지가 더 있는 것 같다.

金學主는 같은 唱의 敎事文學인 中國 講唱中에서 地理的으로 가까운 北方의 鼓詞가 판소리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¹⁴⁾ 그러나 우리 국내에도 이미 敎事性도 있는 和請이 있었으니, 영향을 찾는다면 당연히 和請을 들어야 하겠고, 그리고 판소리의 기원은 역시 巫歌에 두어야 할 것이다.

一般神本풀이도 和請과 아울러서 巫佛習合文藝로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가지는 古小說, 판소리들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리고 이들 巫歌 和請 판소리 古小說들의 相關性과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巫佛習合文藝의

11) 張壽根. 「口傳神話의 文獻神話化 過程」. 李杜鉉敎授停年紀念 論文集, 1989.

12) 金聖培. 「韓國 佛敎歌謠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1973, p.126.

13) 李能和. 「朝鮮巫俗考」. 1927, pp.43-44.

14) 金學主. 「판소리의 講唱」. 韓國思想大系 I, 成大 大東文化研究院, 1973, p. 635.

傳統이 韓國文學史에서 새로이 탐색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⁵⁾ 一般本풀이는 堂神本풀이와는 달리 이상과 같은 우리 神話와 文學史의 相關性에서 더 주목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5) 張壽根. 「巫佛習合文藝의 傳統」. 韓國民俗論叢, 啓蒙社, 1986, pp.379-399.
「和譜의 文學史的 研究」. 京畿大 論文集 22輯, 1988, pp.7-33.